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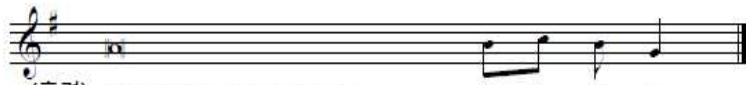
지도신부 : 이윤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평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탈출 34,4ㄱㄷ-6.8-9

화답송 | 시편 다니 3,52ㄱ.52ㄷ.53.54.55.56(◎ 52ㄴ)



(후렴) 세세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 2코린 13,11-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3,16-18

영성체송 |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성가 | 입당 81
영성체 176

예물준비 221(220)
파견 83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옥지 아가다
- 김옥지 아가다
- 조정옥 엘리사벳, 고경덕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강순기 이레네 평안한 안식을 위해
- 최광빈 마누엘

생미사 지향

- 박정자 로사의 빠른 쾌유
- 연령회 회원들의 영육 건강
- 이루리 모니카 생일 축하
- 박창현 영육 건강 위해
- 이상덕 언니, 이로잔 캐더린 영육 건강을 위하여
- 루카 신부님, 마리루시 수녀님
- 김혜미 레오나 생일 축하, 건강과 행복
- 노희정 데레사
- 김수현 실비아 생일 축하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5월 31일	장혜윤	정은철	이경자	이경자	이정현 백이백	최예준 김수현
6월 7일	백이백	김진섭	민덕미	민덕미	김종선 진서윤	한서희 최예준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 오늘 지난 5월 21일에 선종하신 김옥지 아가다 자매님을 위한 연도가 있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간/장소: 11시 10분, 아래성당

* 6/1(월)-6/6(토) 이윤희 루카 신부, 6/15(월)-6/25(목) 안 마리루시 수녀의 연중피정이 있습니다. 성당 관련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우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13일 St. Anthony 축일 본당 일정

축일미사: 8:30am • 9:30am • 11:00am(English)
12:30pm (Kreyol) / 2:00pm (Español)

고해성사: 8:00am – 9:00am
10:00am – 11:00am
1:00pm – 2:00pm

빵 나눔: 10:00 AM-2:00 PM. 31, 32번가 출입구 쪽.
(31번가 담당: 한인공동체)

St. Anthony(6/13,토) 빵나눔 봉사자 모집

봉사 시간: 10:00 AM-2:00 PM

(시간대별 봉사가능, 최소 1시간)

활동: 천막 설치/정리, 빵 나눔, 기부 안내 등

대상: 성인(*안전을 위해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문의/문자신청: 646-832-7397(Sr. 마리루시)

*문자 신청 시 이름/세례명/연락처/봉사 가능 시간대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영성특강

6/14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Fr. James Gannon OFM (작은형제회 미국관구)
7/5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이설빈 세례자 요한 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RISE: 루아 성령 피정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루아(Ruah)는 기도와 묵상, 나눔을 통해 성령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충실히 따르는 삶으로 초대하는 성령 피정을 마련합니다.

일시: 7월 3일(금) - 7월 5일(주일)

장소: 뉴저지 뉴튼 성 바오로 수도원
(St. Paul's Abbey)

대상: 25세 이상 성인(영어 사용 참가자)

참가비: \$250 신청기간: 5월 1일-6월 1일

문의: ruahcatholic25@gmail.com

제30차 2026년 미동북부 성령대회

주제: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루카 17, 21)

일시: 7월 25일(토) 오전 9:00-오후 8:30,
7월 26일(주일) 오후 12:00-오후 6:00

장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280 Parker Ave. Maplewood, NJ 07040)

참가비: \$40 (토요일 점심 저녁, 주일 점심 포함)

신청: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주최: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회(지도신부: 조민현 요셉)

문의: 회장 이영희 마리아 (kaccrs.ne@gmail.com)

오늘의 말씀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정광수 바르나바
(? -1802)



정광수 바르나바는 경기도 여주 부곡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순교자 윤윤희 루치아가 그의 아내이며, 정순매 바르바라는 여동생이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주 신부에게 성사를 받고 교리도 배웠다. 그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던 부모의 반대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1799년 아내와 함께 한양으로 이주하였다. 자신의 집에 교회 집회소를 마련해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모시고 미사를 봉헌하며 교우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교회 서적을 베껴 나누고 성물을 제작하며 신앙 전파에 힘썼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었던 그는 아내가 체포되자 자신도 곧 붙잡힐 것을 알고 피신 끝에 스스로 관헌 앞에 나아가 신자임을 고백하였다. 그는 혹독한 형벌과 배교를 강요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다른 신자들을 밀고하지 않았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여주로 이송되어 1802년 1월 30일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84, 가해, 2026. 05. 31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r@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다시 만난 신약 성경

표징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요한 2,11).

요한 복음의 전반부(1-12장)를 흔히 표징의 책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 기록된 표징이 일곱 개라는 것을 헤아리지만, 복음서 저자는 스스로 예수님의 표징들을 모두 기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2장에서는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징을 이야기하고는 성전 정확에 대해 말할 뿐인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요한 2,23)라고 하니깐요.

첫 번째 표징인 카나의 혼인 잔치에 관한 본문은, 천천히 읽어 보면 많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고, 복음의 다른 장면들과도 색깔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복음을 읽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왜 표징을 보여 주신 걸까요?

교과서 같은 설명을 좀 벗어나 보겠습니다. 보통은 요한 복음 1-12장을 표징의 책이라고 하고 13장 이후를 영광의 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2장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요한 복음 1,14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은 누가 보았을까요? 기적을 직접 겪은 것은 물을 떠온 사람들입니다. 80리터 이상 되는 물동이와 여섯 개였으니 상당히 많은 물을 길어야 했을 텐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했다는 말도 없고, 포도주의 양도 엄청난데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서도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영광을 보고 믿었다면 ‘그들’이 믿었어야 할 것 같은데, 복음서는 그들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요한 2,11)라고 말합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탈출기에서도 표징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집트 땅에서”(탈출 7,3), “그들[이집트인들] 한가운데에”(탈출 10,1), “그들[이집트인들에게]”(탈출 10,2) 표징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하느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임을 너희가[이스라엘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탈출 10,2).

요한 복음에서, 표징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요한 12,37)라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세 때에 이집트인들이 강력한 표징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요한 1,10). 하지만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어쩌면 표징은, 표징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표징을 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는, 표징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과 그 표징에서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요한 1,14)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복음을 읽는 오늘의 우리도 영광을 알아보고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184, 2026. 05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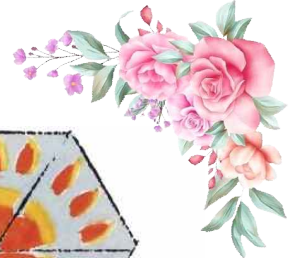


그림 특상

아마도 당신은 | 꽃봉오리에게 우주를 묻습니다. 물에서 왔는지, 햇살에서 왔는지, 바람에서 왔는지... 알 듯 말 듯 그대로 두기도 하고, 가위바위보처럼 끝없이 생각을 바꾸어도 보지만, 아마도 사랑은 변화하는 능력일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있는 나’라고 존재를 밝히신 당신의 이름도 글자로 쓸수록 못갖춘마디가 되는데,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온기를 적셔 마음에 녹아드시겠다는 아버지의 사랑법인가 봅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